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안전 거리 유지(방역에 신경쓰기)**
-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 기도 자주 바치기**

(녹) 연중 제29주일

(2022. 10. 16.)

* 오늘 전례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줄곧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탈출기): 그 무렵 아말렉족이 몰려와 르피담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 제2독서(티모테오 2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

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 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 복음(루카):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여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가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세상살이의 희로애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세월과 세계 정치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겨레를 살피 주시어, 남북한이 적대적인 경쟁을 멈추고 신뢰를 회복하여 경제 협력과 교류를 이루며, 온전한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고, 몸소 위로하시며 굳셈의 은총을 주시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빛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18 주님을 부르던 날

봉 헌: 340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영성체: 151 주여 임하소서 / 170 자애로운 예수

파 견: 6 찬미 노래 부르며

공지 사항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봉사자

	오늘(16일)	다음 주일(23일)
제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제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우윤정 마리아
복사	박시윤 이나시오	엄채윤 엘리사벳
복사	엄소연 라파엘라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 • 교무금 € 100.-